



KOCHAM ECONOMIC REPORT

제 2013-46 호

2013년 10월 23일(목)

□ 미국 경제 동향

- 1) 8월중 미 주택가격지수 전월대비 0.3% 상승
- 2) 백악관, 섯다운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
- 3) 골드만삭스, 양적완화 축소시점 3월 전망

□ 해외 경제 동향

- 1) 스페인 중앙은행, 경기침체 끝날 것으로 예상
- 2) 일본거래소, 2013년 실적 전망 기대 이하
- 3) 미 양적완화 축소 지연으로 신흥국 환율 절상

□ 산업·시장 동향

- 1) 자동차 유망시장, BRICs 지고 Rising15 급부상

□ 미국 경제 동향

1) 8월중 미 주택가격지수 전월대비 0.3% 상승

-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미연방주택금융청(FHFA)은 8월중 미국 주택가격이 전월비 0.3%, 전년비 8.5% 상승했다고 발표
 - 이는 지난 7월의 상승폭인 0.8% 상승 대비해서는 둔화된 결과로 미국 주택시장 회복세가 느려지고 있음을 시사
- 한편 7월중 FHFA의 주택가격지수는 당초 발표됐던 1.0%상승에서 0.80%상승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나, 주택가격은 19개월 연속으로 상승을 기록

2) 백악관, 섯다운으로 4분기 경제성장률 하락 전망

-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미백악관은 연방정부 폐쇄로 4/4분기 경제성장률이 0.25%p 하락, 일자리도 기존 예상치보다 12만개 감소할 것으로 전망
 - 이번 백악관의 전망은 미 노동부가 9월 고용지표를 발표한 날 나온 것으로 미정부가 직장 폐쇄상태에 대해 내놓은 첫 공식 분석
- 제이슨 퍼먼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(CEA) 위원장은 섯다운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자해로 생긴 경제적 상처라며, 섯다운과 벼랑 끝 대치는 경제에 불필요하고 해로운 것이며 이런 상황이 다시 오지 않는 것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준다고 언급

3) 골드만삭스, 양적완화 축소시점 3월 전망

-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골드만삭스는 미연준(FRB)의 양적완화 축소 시점으로 내년 3월이 가장 유력하다고 전망
 - 12월 가능성도 있지만, 2014년에 첫 양적완화 축소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불확실성이 상당하긴 하지만 가장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3월 이라고 밝힘

- 한편, 9월중 비농업부문 신규고용자는 14만8천 명으로 예상치 18만 명에 못 미치자 양적완화의 축소가 2014년으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고조
 - 또한 셋다운으로 미국 4/4분기 경제성장률이 0.2%p(JP모간 추산)에서 0.6%p(S&P)까지 하락할 것이란 전망도 연준(FRB)이 부양기조를 더 유지할 것이라는 예상을 뒷받침
- 2014년 1월에 연방공개시장위원회(FOMC) 정례회의가 예정되어 있지만 연초 정치권에서 재정 문제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연준 의장 교체 시기도 겹쳐 1월보다는 3월이 테이퍼링 시점으로 더 유력하다는 관측

□ 해외 경제 동향

1) 스페인 중앙은행, 경기침체 끝날 것으로 예상

- 지난 10월 23일(현지시간) 스페인 중앙은행은 3/4분기 스페인 국내총생산(GDP)이 전분기 대비 0.1% 증가할 것으로 추정, 9분기 만에 경기침체를 끝낼 것으로 예상
- 블룸버그 통신은 스페인 경기개선 신호가 보이면서 혹독한 긴축 정책을 실시해온 마리아노 라호이 총리에게 힘을 실어줄 것이라고 분석
- 한편 스페인 국채 시장에도 개선된 투자심리가 반영됨
 - 10년 만기 스페인 국채 금리는 2012년 7월 7.75%까지 치솟았으나 현재 4.19%로 하락

2) 유로존, 10월중 소비자신뢰지수 개선

-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유럽연합집행위원회(EC)는 10월중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 예비치가 -14.50로 9월중 기록인 -14.90에서 개선됐다고 발표
 - 이로써 유로존 소비자신뢰지수는 2011년 7월 이후 두 달 연속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이에 따른 완만한 소비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

- 한편 유로존에는 2012년 12월 이후로 최악의 사태를 벗어났으며 다시 위기가 도래할 위험이 낮아졌다는 인식이 확산
 - 금년 들어서는 점차 많은 유로존 국가들이 긴축정책을 완화하고 여전히 높은 상태지만 실업률도 안정되기 시작

3) 미 양적완화 축소 지연으로 신흥국 환율 절상

- 지난 10월23일(현지시간) FT는 양적완화 축소 지연이 환율 방어를 위해 자국 통화 절상에 나섰던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들로 하여금 오히려 오른 통화가치로 인한 고민에 빠지게 했다고 보도
- 지난 8월 브라질 중앙은행이 600억 달러를 푸는 대대적인 시장 개입 계획을 발표한 뒤로 달러 대비 헤알 가치는 12% 절상
 - 그러나 헤알 절상 속도가 빨라져 브라질 중앙은행과 브라질 재무부간 마찰 발생, 이는 재무부 입장에서 헤알 강세가 자국 수출 경쟁력을 떨어뜨리기 때문
 - 이로 인해 브라질 대통령과 재무부 장관은 회의를 통해 브라질 중앙은행에 시장 개입을 축소하라는 압박을 넣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
- 한편 한국에서도 원화 절상이 일본 수출업체들과의 경쟁에서 악재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양적완화 축소 지연은 까다로운 속제로 작용
 - FT는 한국은행이 원화 절상이 너무 빨라지지 않도록 개입을 단행할 것이란 전망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보도

□ 산업·시장 동향

1) 자동차 유망시장, BRICs 지고 Rising15 급부상

- 지난 10월22일(현지시간) 경영컨설팅업체 보스턴컨설팅그룹(BCG)은 15개 신흥국이 앞으로 유망 자동차 시장으로 주목받게 될 것이라고 이들을 'Rising15'라고 명명
 - 'Rising15'에는 ASEAN회원국(인도네시아, 태국, 말레이시아 등)과 중동국가(터키, 사우디아라비아, 이란 등), 남미안데스 지역 국가(칠레와 아르헨티나)와 북아프리카의 모로코, 이집트 등이 포함
- BCG는 2020년까지 연간 자동차 판매 증가율이 동남아시아는 4.7%, 중동은 4.6%, 남미 안데스 지역은 5.4%, 북아프리카는 4.2%가 될 것으로 전망
 - 이들 국가는 연간 1000만대에 달하는 자동차 소비량을 보이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0년까지 연간 1450만대로 늘어날 것이라고 예상
 - 이는 전 세계 신차 판매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규모로 연간 판매량 증가율은 유럽이나 일본의 4배 수준
- 한편 이미 일부 기업들은 이들 국가에서 기반을 넓히는 작업에 착수
 - 토요타는 아세안 시장의 34%를 점유, GM의 쉐보레 브랜드는 남미 안데스 지역에서 18%, 프랑스 르노는 북아프리카에서 23%의 점유율을 확보
 - 그러나 미국은 중동 지역을 비롯해 'Rising15'의 많은 국가들과 정치적 긴장 관계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 예상
- BRICs시장은 이미 경쟁이 치열하며 10년 안에 BRICs는 선진국 수준으로 올라서고 Rising15가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시장으로 떠오를 것이라고 언급/끝/